

■ 주요 뉴스: 미국 11월 ISM 서비스 PMI, 전월비 상승.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감소

-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 12월 ECB가 0.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 Credit Suisse,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 유치 가능성. 건전성 우려 다소 완화
-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 PMI, 6개월래 최저. 코로나 변이 확산 등이 영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 저하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8%],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1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에 따른 통화긴축 우려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식료품 관련주 약세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4%, 1.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강력할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05.4원, +12.8원) 1.0% 상승, 한국 CDS 상승

		12/5일	12/2일	전일대비			12/5일	1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98.8	4,071.7	-1.79%	국채 금리 10y	미국	3.57%	3.49%	8bp
	유럽	441.47	443.29	-0.41%		독일	1.88%	1.86%	2bp
	중국	3,211.8	3,156.1	1.76%		영국	3.10%	3.15%	-5bp
	일본	27,820	27,778	0.15%	CDS 5y	한국	52bp	51bp	1bp
	한국	2,419.3	2,434.3	-0.62%		중국	76bp	77bp	-1bp
환율	달러지수	105.32	104.55	0.74%	위험 지표	EMBI+	-	385	-
	유로화	1.0489	1.0535	-0.44%		VIX	20.65	19.06	8.34%
	엔화	136.81	134.31	-1.83%		WTI유	76.93	79.98	-3.81%
	위안화	6.9625	7.0535	1.31%	원자재	구리	378.2	384.8	-1.72%
	원화	1,292.6	1,299.9	0.56%		금	1,768.2	1,797.6	-1.6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ISM 서비스 PMI, 전월비 상승.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감소

- 11월 ISM 서비스 PMI는 56.5를 기록하여 전월(54.4) 및 예상치(53.5) 상회. 이번 결과로 내년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짧은 기간 동안 약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는 기대 증가. 일부에서는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데 당초 전망보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 특히 세부항목 가운데 고용이 상승(49.1→51.5)했고, 재고 수준도 전월보다 낮은(56.2→53.8) 것으로 확인
- 또한 10월 제조업수주 역시 전월비 1.0% 늘어 전월(0.3%) 및 예상치(0.7%) 상회. 연간 기준으로는 12.8% 증가. 항목별로는 운송장비, 자동차, 기계 등이 큰 폭 늘었고, 자본지출로 추정할 수 항공 제외 비방위부문 자본재 수주는 0.6% 증가
- 지난 주말 이후 고용, 서비스, 제조업수주 관련 지표들이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투자자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저하. 그 동안 연준 인사들은 향후 통화정책이 경제지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
- 12/5일 이러한 영향으로 주가는 하락(S&P500 3,999.84 -1.8%)하고 주요 국채금리는 상승(2Y 4.39% +11bp, 10Y 3.57% +8bp). 11월 초부터 주가가 상당 수준 상승했음을 고려한다면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로 인한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상(JPMorgan의 David Kelly)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국제결제은행(BIS), 대규모 파생상품 때문에 금융시장 위험 대응에 어려움 가중

-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65조달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통화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금융위기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 통화스왑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초기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발화점으로 작용

■ 프랑스 대통령,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에 합의

-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IRA 법안은 수정이 가능하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 법안을 수정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 한편 이탈리아의 지오게티 경제 장관은 미국의 IRA에 맞서 유럽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 12월 ECB가 0.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마쿨로프 총재는 0.5%p 인상이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발언. 상당 기간 제약적 금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첨언
-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현 상황에서 최종금리의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언급. 통화긴축은 적절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

■ 유로존 12월 Sentix 투자신뢰, 6월 이후 최고치. 에너지 부족 우려 완화가 반영

- 12월 Sentix 투자신뢰지수는 -21.0을 기록하여 전월(-30.9) 및 예상치(-27.6) 대비 높은 수준. 이번 결과는 에너지 수급 문제가 당초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금년 겨울 날씨도 상대적으로 따뜻할 것이라는 전망 등에 기인

■ Credit Suisse,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 유치 가능성. 건전성 우려 다소 완화

-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자는 Credit Suisse의 지분 인수를 준비. 초기 투자는 5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 이번 소식은 Credit Suisse의 투자신뢰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

■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 PMI, 6개월래 최저. 코로나 변이 확산 등이 영향

- 11월 차이신 서비스 PMI는 46.7로 전월(48.4) 대비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 이번 결과는 코로나 변이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 한편 서비스 부문 경제활동의 감소는 4/4분기 성장률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 일부는 조기 경제활동 재개 기대

-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12/7일(수) 코로나 19 관련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할 전망. 일부에서는 국경통제 기준 하향 조정, 예상보다 빠른 경제활동 재개 등을 예상. Apple 제품 협력업체인 Foxconn은 12월말 혹은 내년 1월 초에 정상적인 조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5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11월 S&P 글로벌 종합 PMI(확정치): 47.8, 10월(47.3), 속보치(46.4)
- 유로존 10월 소매매출(전월비): -1.8%, 9월(0.8%), 예상치(-1.7%)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최악의 유럽 에너지 위기, 끝났다는 판단은 시기상조 - 블룸버그

(The Worst of Europe's Energy Crisis Isn't Over)

- 지난 3개월간 에너지 가격은 큰 폭 하락했으나 가스 가격은 지난 20년 평균에 비해 7배 높고 전기도 10배 높은 수준
-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우려가 존재. 첫째, 유럽이 소매전기 및 가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으로 7000억유로를 지불했으며 이는 부채증가를 의미. 둘째, 에너지 가격이 7~8월과 비교하여 낮지만 여전히 제조업 활동을 억제할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
- 전기와 가스 비용 관련하여 유럽은 점점 더 많은 기반을 잃고 있으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으면 유럽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전망

■ 미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현실과는 괴리 - Financial Times

(‘Wage inflation? What wage inflation?’ ask workers)

- 정책 당국과 기업 경영진은 임금 상승이 주도하는 물가 상승 압력에 우려를 표명. 하지만 상반기 전세계 실질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특히 미국과 캐나다가 크게 부진. 반면 연준은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경계
-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2/3를 차지하고 있어, 임금 상승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에 문제가 발생. 생산성 제고와 임금 상승 간 상관관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은 노동분배율을 높일 여지가 상당
-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완화 장기화에 기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그에 비해 제한적.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

■ 중국의 주가 상승, 잠재적 위험 요인이 존재 - WSJ

(China's Stock Rally Is Still Vulnerable)

- 중국 주가는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지속 상승. 하지만 이후에도 장기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 부문의 회복 가능성 및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부작용 수준 등에 좌우될 전망
- 방역 조치 완화 혹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주사 미접종 등으로 인명 피해가 크게 늘어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전 폐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 아울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침체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소지

■ 미국의 경기 변화,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제조업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 - WSJ

(Services Come With a Smile, but the Economy Could Still Be Frowning)

- 11월 ISM 서비스 PMI는 확장의 기준인 50을 상회했으나 제조업 PMI는 49.0을 기록하며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하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상반된 모습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 또한 제조업 분야가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또 다른 요인
- GDP 가운데 제조업(32%)과 비교하여 서비스업(60%) 비중이 우위.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기의 확장 또는 위축에 제조업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또한 과거 경기침체 시에도 서비스업 활동의 위축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경우가 상당 수 존재
- 또한 구조적으로 서비스업은 다수의 노동자를 요구하여 관련 활동의 신속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편. 이에 제조업 활동 위축이 지속된다면 전반적인 경제 역시 부진한 국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

■ 10월 유로존 소매판매 감소, ECB의 금리인상 폭 축소 압력으로 작용 - Financial Times

(Fall in eurozone retail sales boosts chances of smaller interest rate rises)

■ Apple의 중국 내 공급망 해외 이전 검토, 중국 사업 위험 증가를 시사 - WSJ

(Apple's Warning About China Business)

■ 유럽, 에너지 위기 극복 넘어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이 절실 - Financial Times

(Europe urgently needs a new industrial master plan)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